

# 목어

## '장군님' 과 '하나님'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만남과 또 한번의 뼈아픈 이별은 민족의 비애를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 36년 망국의 세월, 그리고 55년 분단의 세월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인가. 1세기 가까운 우리 민족의 이 비운과 통한은 왜 찾아왔는가. 전법국 일본은 제쳐두고 왜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갈라져야만 했는가.

외세들의 자국이익을 위한 아합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산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분열되었다. 분단조국은 결국 민족의 이름 아래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 겨레 모두의 업보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왜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는가. 다시금 되새기고 아울러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곱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이념의 문제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민족의 이름 앞에서는 우선할 수 없다는 교훈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만남에서도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것은 반세기기의 이별보다는 오히려 이념적 장벽이었다.

남북이 모두 통일을 말했지만 북에서 온 방문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남에서 무수히 상사할 때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쉽게 연상시켰다. 이번 보도에서도 일부 매스컴 종사자들은 공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종교적 이념을 내세우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연출시켰다.

이념의 굳은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민족적 화두가 될 것이다. 이념, 지역, 종교, 계급적 갈등과 분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지 못하는 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또 다른 분단의 씨앗을 안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 해후의 눈물을 민족의 눈물로 읽어내고 이를 다시 민족적 각오로 재생산 해내야 한다. 거기에는 이념에 스스로 함몰되지 않고 민족적 용기를 위해 다 양성과 이질성을 조화시키고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다시는 타민족의 지대나 분단의 역사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 남북 종교교류 '가속도 붙는다'

## 종교대표 바르면 10월초 방북

## 문화유산 복원도 전망 밝아

남북 7대종교 대표의 방북 시기는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한다는 발표 후 4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방북했음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단 규모는 7대종교 대표 1명 또는 2명씩과 수행원, 지원요원 등 많으면 30명 안팎으로 언론사 사장단보다는 적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연구자들은 북한 당국이 종교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그동안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 어느 부분보다 종교교류가 활발했던 점으로 미루어보면 당연한 귀결로 보고 있다. 89년 6월부터 99년 10월까지의 사회·문화분야 남북간 교류 가운데 종교교류는 111건(867명)으로 교육·학술 교류(149건, 1941명) 다음으로 많았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종교대표 초청에 대해 "그동안 남북지원이 활발했던 점을 고려한 측면이 많다. 남한 상층부 차원의 대북 인식의 개선, 대북지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남측에서는 평화비용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사찰 복원

등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계 등은 이를 통해 북한의 사찰 및 폐사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밝힌 '내금강 사찰 복원' 발언은 남북불교교류가 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박지원 장관은 김 국방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사찰 복원에 대해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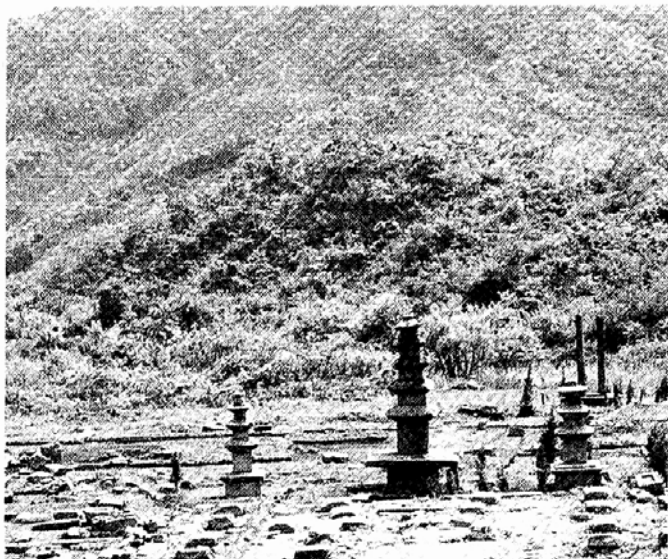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이 사찰 복원을 희망하는 것은 불교의 신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화유산 복원-관광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사찰을 복원하는 것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의 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유적 복원과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법타스님(평불협 공동회장)은 저서 <북한불교연구>에서 "순수한 사찰의 기

능에서는 이탈 변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므로 긍정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내금강 사찰 복원과 관련, 현대 아산은 "아직 복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불교계가 앞장서면 도움이 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복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자료조사를 통해 불교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찰부터 복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조선불교도연맹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유해 조 발굴조사를 마친 영통사터. 대각국사비와 5층석탑, 사3층석탑, 동 3층석탑 등이 남아 있다.

# 영통사 복원 곧 가시화

## 내년 의천스님 열반 900돌... 가능성 높아

## 복, 발굴조사 끝내고 복원계획 수립

한국 천태종을 연 의천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영통사 복원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지난 5~12일 방북해 북한의 강능수 문화상과 만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북한의 강능수 문화상이 천태종의 발상지가 북한이라고 하면서, 한중일

불교계가 한국 천태종 발상지 사찰을 복원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천태종 발상지를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지인 개성 영통사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고고학연구소와 일본의 천태종 총림학교인 대정대학 발굴팀이

98년 5월부터 2년 동안 4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15.8km에 이르는 영통사 순환도로도 이미 개설했으며, 북한의 고고학연구소와 경양건설건축대학 건축사 연구실 등 북한과 일본의 연구기관들이 영통사 복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65호 11면 시랑세계 참조>

이에 대해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은 "아직 복원 계획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17일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스님이 박지원 장관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영통사 복원과 관련한 천태종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이 의천스님 열반 9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북한이 개성을 관광·공업이 결합된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영통사 복원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시어로 '깨달음의 지혜' 읽으며 간접경험

##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 23선시 읽기(2)

溪聲便是廣長舌 시냇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다  
山色豈非清淨身 산빛은 깨끗한 법신인세.

夜來八萬四千偈 밤 새 쏟아내는 팔만사천 게송  
他日如何學示人 다음 날 어떻게 내보여 줄 수 있을까.

<중동림총장로(贈東林總長老)>  
소동과의 이 시는 신하대지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요, 선의 세계인 무처불사신(無處不是禪)의 경계를 읊은 오도시이다. 벽암록에 견색명심 문성오도(見色明心 聞聲悟道)라는 선어가 있다. 사물의 색상에 응하여 심성을 밝히고, 자연의 소리로 본성을 깨

친다는 뜻이다.  
선사에서 기승구는 색채와 소리, 시간과 공간이 각각 대구를 이루고, 전경구에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경(意境)을 내보인다. 한시의 선경후정(先景後情)에 조응하는 표현이다. 참선자는 오선경(悟禪境)을 추구하고, 시인은 오시경(悟詩境)을 추구하고, 참선자와 선시의 공통점은 깨달음을 추구하며, 묘경(妙境)에 이르기 위해 무아지경(無我之境), 주객일여(主客一如)의 상태에서 사유(참구)하는 대상과 삼매(三昧)의 경지에 다달아야 함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선과 시가 다른 점은 선에서는 깨달음 뒤에 언설(言說)에 집착하지 않지만, 시는 문자에 의탁하여 자신의 의경을 표출해 낸다는 점이다.  
선과 시의 처음 만남은 신수(神秀)의 무상계(無相偈)와 혜능(慧能)의 자성계(自省偈)로부터이다.

身是菩提樹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心如明鏡臺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  
時時勤拂拭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莫使有塵埃 번뇌의 때가 끼지 않도록 하세.

<신수 무상계>

菩提本無樹 깨달음은 본시 나무가 아니며  
明鏡亦無臺 밝은 마음 역시 받침이 없네.  
佛性常清淨 불성은 늘 깨끗하거늘  
何處有塵埃 어디에 번뇌 티끌 있으리오.

<혜능 자성계>

이 두 게송은 신수의 북종점수선(北宗漸修禪), 혜능의 남종돈오선(南宗頓悟禪)의 종지(宗旨)와 교의를 천



김형중  
명성여교법사  
문학박사

명한 시법시(示法詩)가 되었고, 육조단경의 '전법 계승 발우사울'에서 선문학의 정점(點睛)이 되었으며, 선종사(禪宗史)에 미친 영향은 사뭇 크다

선시는 선택을 사자상승(師資相承)하는 증거가 되었고, 깨달음의 경계를 내보이는 수단이 되었기에 우리는 선시를 통해서 선사(禪師)의 인고적 선의 체행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선시는 선사상이나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승들의 고차원적 정신활동과 깊은 사유를 통한 심오한 철리를 담은 역할을 했다.

예술사적 측면이나 미학에서도 선적 체행을 통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주객일여(主客一如)의 물인(삼매)은 작품에서 하나가 되어 일체관과 초월

성을 드러내는 미적 창조성과 직관적 심미성이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게 되었다.

직관과 돈오(頓悟)에 의한 깨달음은 기존의 고정 관념을 타파하여 창조적 사유방식과 단도직입적(單刀直入)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각고(刻苦)의 구도심(求道心)과 자유무애(自由無礙)한 시심(詩心)은 깨달음을 통한 자유, 해방, 한가, 여유로 드러나 작품을 통해 여백미와 정미미(靜謐美), 미외미(味外味)의 미학으로 나타난다.

불교회화, 건축, 조각 등에서 동방 미학의 특색인 고요와 여백미가 그 한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참선을 통하여 얻는 무아심(無我心)과 직관적 사고는 통찰의 혜안(慧眼)을 뜨게 했고, 선의 천진면목(天真面目)과 우주심은 작품 속에서 순수 자연과 청정심(淸淨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 사회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에서 생기는 대립적 갈등이나 대립을 종합적이고 원융적(圓融的)인 사유를 갖도록 유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통일적 사유 방식은 유불선(儒佛仙) 삼교합일론(三教合一論)과 선교일치론(禪教一致論)으로 나타나 한 국사상사의 한 특징이 되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논설고문 : 고은  
인쇄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2천원 영구 50만원

# 삼학불교대학 학생 모집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선50명	·고등학교 및 수능능력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어과	2년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2. 학원연혁**

1989.7.3 학원성립공고  
1990. 삼학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취득  
1991.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1992.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취득  
1993.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1994.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개설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5.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2000.2 제9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추후)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 ~ 8 FAX. 511-1080  
일본동경본교: TEL. 055-233-18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apia.com  
1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대학원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교육부 학력 인정◆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문의처  
1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대학원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1. 모집학과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재공부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건강 진단서 1통 ·보증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 사진 3매
중 의 외 과	5년	
중 약 학 과	5년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등 완비
- ▶ 외국인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 입대대 연기가능
- 주소 : 중국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대학원